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스타일에 관한 연구

-1970~2011년 드레스 중심으로-

Study Regarding Miss Korea's Dress Fashion Style

-Focus on dress from 1970 to 2011-

이복희

서경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Bok-Hee Lee(3502123@naver.com)

요약

1957년부터 시작된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선발된 미스코리아들은 당 시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미인으로서 전 국민적 관심을 받아왔으며, 사회, 문화, 미용 예술학적 분야 등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반면에 학문적 관심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일부 선행연구들조차도 연구도구의 객관성과 용어의 통일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디자인 구성요소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대별 유행경향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여 미의식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70년부터 2011년까지 미스코리아 시상식 드레스를 기준으로 해당 사진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련 전공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관독·분석하여 나온 의견을 토대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디자인 구성요소의 특징들은 미스코리아의 사랑스럽고 지적이며 때로는 섹시하고 고급스러운 여성미를 돋보이고자 연출되었으며 시대별 유행경향과의 관계는 당 시대의 웨딩드레스의 유행경향이 미스코리아 드레스에 많이 반영되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 중심어 : | 패션 | 드레스 | 미스코리아 |

Abstract

Miss Korea, who was Korea's first in the Miss Korea Contest in 1957, will be carried on social, cultural, beauty cosmetology as the most representative official beauty in the same age for immense effect on national interest. However, it has been said that the scholarly interest is dull of lack of objective means and irregular choice of terms in leading research. For this reason, this study will be examined the features of design components in Miss Korea dress and improved as basic research material of beauty cosmetology with comparison and analysis on fashion trend of the age.

This study will be come up with views of result on the basis of the dress of Miss Korea award ceremony from 1970 to 2011, collecting photo material and decoding or analysis of preparatory research and main research with graduates and lectures through setting analysis instrument.

As a result, the notable features of designing structural elements, which are shown in Miss Korea's dress fashion style are produced lovely, intellectual. sexy and luxurious feminine beauty. It has been remarkably seen that the wedding dress fashionable trends of the times are reflected in Miss Korea's dress on this study.

■ keyword : | Fashion | Dress | Miss Korea |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아름다움 즉 미(美)의 평가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므로 평가자의 성별이나 연령대, 인종, 문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미인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대마다, 또는 문화의 변화에 발맞춰 지금도 미인상이 존재·변화하고 있으며, 역사 속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미인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수차례 언급되어 오늘날까지 문헌이나 구전을 통해 그들의 이름이 회자되어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1957년부터는 미의 대표를 뽑는 미스코리아 대회가 개최되어 시대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미의 중심인물을 공식적으로 선발하였고, 당선된 미스코리아들은 그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여성을 대표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사적, 미용예술학적 등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며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코리아들은 역사속의 미인들에 비해 연구적 관심이 저조하며, 일부 선행 연구들의 객관적 도구의 부재 및 용어의 비 일괄적인 문제점도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 미인인 미스코리아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도구를 통해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디자인 구성요소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대별 유행경향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패션의 변화와 발전은 그 배경이 되는 사회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적 변화를 웅변적으로 드러내주는 역할[13]을 하므로 본 연구를 통해 미스코리아 드레스에 나타난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의미하는 의도를 해석하여 미스코리아들이 대중들에게 패션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미의식을 탐구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스타일에 나타난 구성요소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대별 웨딩드레스의 유행경향과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스타일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로써, 본 연구의 기준이 되는 미스코리아

본선 입상 당시의 드레스사진은 대부분 대표성과 공식성에 부합되는 미스코리아 공식 사이트[15]에서 선별하였으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1970년부터 2011년까지로 총126인의 미스코리아(진, 선, 미)의 사진 총457장이 수집되었다.

이 연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사진자료 외에도 관련 선행논문 및 기사스크랩 등의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선택되어진 사진자료들은 2011년 2월 대학원생과 전공교수 20명이 예비조사로 사진 분석에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은 2011년 3월 관련경력 5년 이상의 패션 전공교수 2인과, 관련 전공인 3인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져 이에 판독·분석하여 나온 의견을 토대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오래된 사진, 흑백사진, 자료의 희소성 등의 이유로 색채와 형태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었음을 미리 밝혀두며, 판독이 어려운 분석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3. 연구 분석기준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스타일에 나타난 디자인 구성요소는, 실루엣, 디테일(넥라인, 웨이스트라인, 재봉과정의 디테일), 트리밍, 색채, 장신구를 살펴보았다.

실루엣은 H-실루엣의 엠파이어, 슈프트, 쉬스, 튜블러, A-실루엣의 트라페즈, O-실루엣의 배럴, X-실루엣의 프린세스, 피트 앤 플레어, 아워글래스, 머메이드, 기타의 11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디테일의 넥라인은 V, U, 스퀘어, 라운드, 로우, 캐미솔, 오프숄더, 홀터, 스윗하트, 원숄더, 보트, 기타의 12가지 유형으로 보았으며, 웨이스트라인은 하이, 네츄럴, 로우, 기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재봉과정의 디테일은 개더, 러플, 플리츠, 바인딩, 드레이프, 랩어라운드, 티어, 페츨러프, 레이스, 컷워크, 고어, 셔링, 없음, 기타의 14가지로, 트리밍은 스팅글, 비즈, 자수, 벨트, 꽃, 리본, 브레이드, 솔, 트레인, 스카프, 버튼, 케이프, 없음, 기타로 살펴보았다.

색채는 유채색 R(빨강), YR(주황), Y(노랑), GY(연두), G(초록), B(파랑), P(보라), RP(자주), 무채색 W(흰색), BK(검정), glitter color에는 GD(금색), SL(은색), 그리고 기타에서는 판독 불가능한 색채를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신구는 목걸이 착용, 귀걸이 착용, 목걸이와

귀걸이 착용, 없음, 기타로 분류하였다.

또한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스타일과 시대별 유행 경향과의 관계는 당대의 웨딩드레스 스타일이 미스코리아 드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1970년대의 웨딩드레스의 유행경향

1970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 매스 미디어의 성장과 발달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산업화, 도시화, 대중화 등의 사회 변동 현상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식 변화에도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다양화, 공존화의 흐름을 보였다[10]. 방송매체가 많이 보급되면서 대중스타들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유행을 선도하는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으며, 민영방송의 보급과 대중문화의 활성화로 인하여 경직된 패션경향에서 웨딩드레스의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거나 가슴을 노출시키는 네크라인을 유행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11]. 이 당시 웨딩드레스는 실용적인 모드의 H라인이나 A라인 등 허리선을 강조했고, 60년대의 7부 소매 대신 넓은 소매와 반팔소매가 나타났다. 어깨를 강조한 하이 네크라인과 가슴부분은 씨-드루-스타일로 장식하고, 룡 베일이 등장해 트레인을 대신 하였으며 섬유산업의 발달로 소재가 매우 다양해졌다.

2. 1980년대의 웨딩드레스의 유행경향

국내의 80년대 초에는 웨딩드레스도 더욱 개성적인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면서 가장 화려해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실루엣은 X라인의 셔링이 많은 플레어 형태에, 트레인이 길게 끌리고 레이스 장식이 두드러졌으며 풍부한 옷감의 소재로 다양한 디테일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1987년에는 인어 스타일이, 1988년에는 복잡한 디테일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실루엣을 크게 강조하는 스타일, 1989년에는 아이보리 색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80년대 후반에는 어깨와 스커트가 부풀려진 소위 '공주풍'의 웨딩드레스가 크게 유행하기도 하였다[11].

한편, 국내에도 다이애나 비의 웨딩드레스의 영향을 받은 어깨와 스커트가 부풀리고 자락은 길게 늘어지는 퍼프소매의 드레스가 유행했다.

3. 1990년대의 웨딩드레스의 유행경향

국내의 1990년에서 1994년까지의 웨딩드레스의 특징은 개성의 표현으로 자기 체형에 맞는 디자인의 드레스로 고르게 된 실루엣의 다양화와 계절에 관계없이 레이스와 노방의 사용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네크라인 부분의 과감한 노출이 눈에 띄고 있다. 트레인이 80년대보다 더욱 장식적이고 부피가 커졌다[8].

또한 90년대 중반까지는 80년대의 공주풍 웨딩드레스가 계속되었으며, 90년대 후반기 이후 전체적인 장식을 절제한 심플한 웨딩 디자인이 인기를 끌면서 패션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웨딩드레스의 소재가 고급화 되면서 어깨를 풍성하게 하는 퍼프소매가 사라지고 몸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슬림 앤드 룡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기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였다[11]. 2006년 많이 보여 지고 있는 스타일인 폭이 좁은 라인은 90년대 후반기 이후 정착화 된 라인이 재정의 된 것이다.

4. 2000년대 이후의 웨딩드레스의 유행경향

2000년대 웨딩드레스의 대표적 특징은 럭셔리와 심플함으로 실루엣은 A라인이나 H라인 등 몸의 곡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차분한 실루엣으로 슬립화, 단순화되고 대신에 디테일과 소재는 지수, 비즈, 실크, 인조 보석 등으로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연출되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웨딩 코디네이션의 패턴에도 동서양 모두에게서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완성시키는 토탈 코디네이션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는 김정연(2007)의 연구에서는 2001 S/S에서 2004 F/W까지 발표된 것들 중 하이웨이스트 드레스는 전체 컬렉션의 10%에도 미치지 않았으나 2005년 S/S부터는 그 수가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였다[7]. 그 이유는 2005년 S/S 패션 트렌드에서 50년대 복고 스타일이 큰 특징으로 부각되어 여성스런 선을 강조하기

위해 피트 앤 플레어(fit & flare)와 허리선이 높은 하이 웨이스트 실루엣이 집중적으로 즐겨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석했고, 이는 형태면에서 여성미를 바탕으로 한 여체의 곡선을 관능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한 실루엣과 몸에 피트 되지 않은 여유로움을 담은 자연적인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았다. 반면, 여성스러움에 약간의 과장을 덧입힌 벌크 실루엣과 머메이드 실루엣은 낭만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으며 여기에 프릴과 서링을 잡아 만든 디테일은 부드러운 감성의 여성미를 나타내주고 회화풍 구도로 그려 넣은 꽃문양은 파스텔컬러와 함께 부드러운 여성적 감성을 표현해준 것이라 했다[7].

끝으로 2000년대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은 더욱 다양화, 개성화와 더불어 단순해지고 캐주얼화 되면서도 여성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고, 웨딩드레스가 항상 여성의 몸 전체를 가려왔으나 그것마저 탈피하고 있다[14].

III. 연구결과 및 분석

1. 드레스 패션스타일의 구성요소별 특징 연구결과

1.1 실루엣

본 연구에서는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스타일의 실루엣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즉 1970년대는 H-튜블러가 전체의 20.0%로, 1980년대는 X-피트 앤 플레어가 전체의 38.0%로, 1990년대는 H-쉬스가 전체의 60.0%로 2000년 이후는 H-쉬스가 전체의 44.0%로 가장 많아 시대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p<.001)를 보였다.

1.2 디테일

가. 네크라인

본 연구에서는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스타일의 네크라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즉 1970년대는 기타를 제외한 V가 전체의 30.0%로, 1980년대와 1990년대, 2000년 이후는 오프숄더가 각각 전체의 33.3%, 40.0%, 52.0%로 가장 많아 시대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1)를 보였다.

표 1. 실루엣 분석결과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전체	χ^2	p		
H	엠파이어	빈도 1, % 5.0	빈도 1, % 4.8	빈도 0, % 0.0	빈도 2, % 4.0	빈도 4, % 3.2	74.678	.000***	
	쉬프트	빈도 2, % 10.0	빈도 0, % 0.0	빈도 1, % 2.9	빈도 1, % 2.0	빈도 4, % 3.2			
		쉬스	빈도 2, % 10.0	빈도 0, % 0.0	빈도 21, % 60.0	빈도 22, % 44.0			빈도 45, % 35.7
	튜블러		빈도 4, % 20.0	빈도 0, % 0.0	빈도 1, % 2.9	빈도 3, % 6.0			빈도 8, % 6.3
		A	트라페즈	빈도 0, % 0.0	빈도 0, % 0.0	빈도 1, % 2.9			빈도 1, % 2.0
	O		배럴	빈도 0, % 0.0	빈도 1, % 4.8	빈도 1, % 2.9			빈도 0, % 0.0
X		프린세스	빈도 2, % 10.0	빈도 0, % 0.0	빈도 0, % 0.0	빈도 0, % 0.0			빈도 2, % 1.6
	피트앤플레어	빈도 3, % 15.0	빈도 8, % 38.0	빈도 7, % 20.0	빈도 12, % 24.0	빈도 30, % 23.8			
		아워클래스	빈도 2, % 10.0	빈도 5, % 23.8	빈도 2, % 5.7	빈도 4, % 8.0			빈도 13, % 10.3
	머메이드		빈도 0, % 0.0	빈도 5, % 23.8	빈도 1, % 2.9	빈도 4, % 8.0			빈도 10, % 7.9
		기타	빈도 4, % 20.0	빈도 1, % 4.8	빈도 0, % 0.0	빈도 1, % 2.0			빈도 6, % 4.8
	합계		빈도 20, % 100.0	빈도 21, % 100.0	빈도 35, % 100.0	빈도 50, % 100.0			빈도 126, % 100.0

*** p<.001

표 2. 네크라인 분석결과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전체	χ^2	p		
V	빈도 6, % 30.0	빈도 2, % 9.5	빈도 4, % 11.4	빈도 1, % 2.0	빈도 13, % 10.3	68.020	.000***		
	U	빈도 0, % 0.0	빈도 1, % 4.8	빈도 0, % 0.0	빈도 0, % 0.0			빈도 1, % 0.8	
스퀘어		빈도 1, % 5.0	빈도 2, % 9.5	빈도 2, % 5.7	빈도 2, % 4.0			빈도 7, % 5.6	
	라운드	빈도 0, % 0.0	빈도 1, % 4.8	빈도 2, % 5.7	빈도 2, % 4.0			빈도 5, % 3.9	
로우		빈도 2, % 10.0	빈도 5, % 23.8	빈도 2, % 5.7	빈도 4, % 8.0			빈도 13, % 10.3	
	캐미솔	빈도 1, % 5.0	빈도 1, % 4.8	빈도 3, % 8.6	빈도 8, % 16.0			빈도 13, % 10.3	
오프숄더		빈도 3, % 15.0	빈도 7, % 33.3	빈도 14, % 40.0	빈도 26, % 52.0			빈도 50, % 39.7	
	홀터	빈도 1, % 5.0	빈도 0, % 0.0	빈도 3, % 8.6	빈도 3, % 6.0			빈도 7, % 5.6	
스위하트		빈도 0, % 0.0	빈도 1, % 4.8	빈도 2, % 5.7	빈도 1, % 2.0			빈도 4, % 3.2	
	원숄더	빈도 0, % 0.0	빈도 1, % 4.8	빈도 2, % 5.7	빈도 2, % 4.0			빈도 5, % 3.9	
보트		빈도 0, % 0.0	빈도 0, % 0.0	빈도 1, % 2.9	빈도 1, % 2.0			빈도 2, % 1.6	
	기타	빈도 6, % 30.0	빈도 0, % 0.0	빈도 0, % 0.0	빈도 0, % 0.0			빈도 6, % 4.8	
합계		빈도 20, % 100.0	빈도 21, % 100.0	빈도 35, % 100.0	빈도 50, % 100.0			빈도 126, % 100.0	

** p<.01

나. 웨이스트라인

본 연구에서는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스타일의 웨이스트라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즉 1970년대는 하이와 네츄럴이 전체의 각각 40.0%, 1980년대와, 1990년대, 2000년 이후는 네츄럴이 각각 전체의 66.7%, 91.4 %, 70.0%로 가장 많아 시대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 (p<.001)를 보였다.

표 3. 웨이스트라인 분석결과

구 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전체	χ ²	p		
하이	빈도 8 % 40.0	빈도 1 % 4.8	빈도 1 % 2.9	빈도 8 % 16.0	빈도 18 % 14.3			48.690	.000***
네츄럴	빈도 8 % 40.0	빈도 14 % 66.7	빈도 32 % 91.4	빈도 35 % 70.0	빈도 89 % 70.6				
로우	빈도 0 % 0.0	빈도 6 % 28.6	빈도 1 % 2.9	빈도 5 % 10.0	빈도 12 % 9.5				
없음	빈도 1 % 5.0	빈도 0 % 0.0	빈도 1 % 2.9	빈도 2 % 4.0	빈도 4 % 3.2				
기타	빈도 3 % 15.0	빈도 0 % 0.0	빈도 0 % 0.0	빈도 0 % 0.0	빈도 3 % 2.4				
합계	빈도 20 % 100.0	빈도 21 % 100.0	빈도 35 % 100.0	빈도 50 % 100.0	빈도 126 % 100.0				

*** p<.001

다. 재봉과정의 디테일

본 연구에서는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스타일의 재봉과정의 디테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재봉과정의 디테일 분석결과

구 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전체
개더	빈도 6	빈도 7	빈도 8	빈도 7	빈도 28
러플	빈도 1	빈도 5	빈도 2	빈도 1	빈도 9
플리츠	빈도 0	빈도 3	빈도 1	빈도 0	빈도 4
바인딩	빈도 2	빈도 2	빈도 3	빈도 0	빈도 7
드레이프	빈도 0	빈도 0	빈도 2	빈도 5	빈도 7
랩어라운드	빈도 0	빈도 2	빈도 0	빈도 0	빈도 2
티어	빈도 0	빈도 3	빈도 0	빈도 2	빈도 5
페플럼	빈도 0	빈도 2	빈도 2	빈도 1	빈도 5
레이스	빈도 0	빈도 2	빈도 1	빈도 1	빈도 4
컷워크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2	빈도 2
고어	빈도 1	빈도 0	빈도 0	빈도 1	빈도 2
셔링	빈도 0	빈도 0	빈도 0	빈도 7	빈도 7
없음	빈도 3	빈도 0	빈도 11	빈도 20	빈도 34
기타	빈도 7	빈도 1	빈도 6	빈도 7	빈도 21
합계	빈도 20	빈도 27	빈도 36	빈도 54	빈도 137

즉 1970년대는 기타를 제외하고 개더의 연출이 6회로, 1980년대는 개더가 7회로, 1990년대와 2000년 이후는 없음이 각각 11, 20회로 가장 많아 시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1.3 트리밍

본 연구에서는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스타일의 트리밍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즉 1970년대는 없음이 전체의 14회로, 1980년대는 비즈가 6회로, 1990년대는 없음이 8회, 그 다음으로 자주, 꽃, 리본이 각각 7회씩으로, 2000년 이후는 없음이 전체의 20회로 가장 많아 시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5. 트리밍의 분석결과

구 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전체
스팽글	빈도 0	빈도 3	빈도 0	빈도 3	빈도 6
비즈	빈도 1	빈도 6	빈도 4	빈도 8	빈도 19
자수	빈도 0	빈도 1	빈도 7	빈도 8	빈도 16
벨트	빈도 0	빈도 1	빈도 0	빈도 0	빈도 1
꽃	빈도 1	빈도 4	빈도 7	빈도 12	빈도 24
리본	빈도 0	빈도 3	빈도 7	빈도 0	빈도 10
브레이드	빈도 0	빈도 0	빈도 2	빈도 0	빈도 2
솔	빈도 0	빈도 0	빈도 2	빈도 2	빈도 4
트레인	빈도 0	빈도 3	빈도 5	빈도 8	빈도 16
스카프	빈도 0	빈도 0	빈도 1	빈도 0	빈도 1
버튼	빈도 0	빈도 0	빈도 2	빈도 2	빈도 4
케이프	빈도 0	빈도 0	빈도 4	빈도 2	빈도 6
없음	빈도 14	빈도 5	빈도 8	빈도 20	빈도 47
기타	빈도 4	빈도 3	빈도 1	빈도 2	빈도 10
합계	빈도 20	빈도 29	빈도 50	빈도 67	빈도 166

1.4 색채

본 연구에서는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스타일의 색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즉 1970년대는 기타를 제외하고 W가 전체의 40.0%로, 1980년대는 W가 전체의 33.3%로, 1990년대는 BK가 전체의 22.9%로, 2000년 이후는 W가 전체의 26.0%로 가장 많아 시대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p<.001)를 보였다.

표 6. 색채 분석결과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전체	χ ²	p
R	빈도 0	0	2	6	8		
	% 0.0	0.0	5.7	12.0	6.3		
YR	빈도 0	0	3	8	11		
	% 0.0	0.0	8.6	16.0	8.7		
Y	빈도 0	0	0	4	4		
	% 0.0	0.0	0.0	8.0	3.2		
GY	빈도 0	1	2	0	3		
	% 0.0	4.8	5.7	0.0	2.4		
G	빈도 0	2	0	2	4		
	% 0.0	9.5	0.0	4.0	3.2		
B	빈도 1	1	3	4	9		
	% 5.0	4.8	8.6	8.0	7.1		
PB	빈도 0	0	2	5	7		
	% 0.0	0.0	5.7	10.0	5.6		
P	빈도 0	0	0	3	3		
	% 0.0	0.0	0.0	6.0	2.4		
RP	빈도 0	5	5	1	11		
	% 0.0	23.8	14.3	2.0	8.7		
W	빈도 8	7	5	13	33		
	% 40.0	33.3	14.3	26.0	26.2		
BK	빈도 0	0	8	1	9		
	% 0.0	0.0	22.9	2.0	7.1		
GD	빈도 0	0	4	2	6		
	% 0.0	0.0	11.4	4.0	4.8		
SL	빈도 0	2	1	1	4		
	% 0.0	9.5	2.9	2.0	3.2		
기타	빈도 11	3	0	0	14		
	% 55.0	14.3	0.0	0.0	11.1		
합계	빈도 20	21	35	50	126		
	% 100.0	100.0	100.0	100.0	100.0		

*** p<.001

* R(빨강), YR(주황), Y(노랑), GY(연두), G(녹색), B(파랑), P(보라), RP(자주), GR(회색), W(흰색), BK(검정), GD(금색), SL(은색)

1.5 장신구

본 연구에서는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스타일의 장신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즉 1970년대는 기타가 전체의 40.0%로 관독이 어려운 사진이 많았지만 귀걸이 착용이 35.0%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는 귀걸이가 각각 전체의 61.9%, 80.0%, 82.0%로 가장 많아 1970년대와 그 이후의 시대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 (p<.001)를 보였다.

표 7. 장신구 분석결과

구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전체	χ ²	p		
목걸이	빈도 2	2	1	1	6			51.1 91	.000 ***
	% 10.0	9.5	2.9	2.0	4.8				
귀걸이	빈도 7	13	28	41	89				
	% 35.0	61.9	80.0	82.0	70.6				
목걸이 + 귀걸이	빈도 2	4	1	4	11				
	% 10.0	19.0	2.9	8.0	8.7				
없음	빈도 1	2	5	2	10				
	% 5.0	9.5	14.3	4.0	7.9				
기타	빈도 8	0	0	2	10				
	% 40.0	0.0	0.0	4.0	7.2				
합계	빈도 20	21	35	50	126				
	% 100.0	100.0	100.0	100.0	100.0				

*** p<.001

2. 드레스 패션스타일의 구성요소별 특징 연구분석

2.1 실루엣

1970년대의 미스코리아들은 H, X-실루엣을 많이 선호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실용적인 H-실루엣과 과거 지향적이며 전통적 스타일의 X-실루엣 모두를 선호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1980년대에는 X-실루엣이 가장 많이 연출되어 드레스의 실루엣을 풍성하게 하고 화려하며 로맨틱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는데, 80년대의 중후반에는 머메이드 실루엣으로 색시미를 강조했다며 다시 후반에는 공주풍의 X-실루엣이 등장하여 로맨틱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의 미스코리아 드레스의 초반은 1980년대의 공주풍 드레스를 그대로 이어오면서 클래식하고 로맨틱한 이미지를 연출하였고, 후반부터는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여 단아하고 모던한 이미지를 연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 후반의 미스코리아 드레스 스타일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도 비슷한 드레스 패션스타일을 이어오는데 점점 단순하지만 고급스러운 취향으로 더욱 개성을 돋보이고자 하였으며, 특히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의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의 풍성하고 화려한 스타일이 특징적이며, 2000년대 후반부터는 A, 머메이드, 슈스 실루엣으로 다양하고 개성적인 드레스 패션스타일을 선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의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스타일에서 슈스와 피트앤플레이 실루엣이 많이 등장하였던 것은 슈스 실루엣의 단아하고 색시한 여성미의

강조와 피트앤 플레이의 화려하고 로맨틱한 여성미를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

2.2 디테일

가. 네크라인

1970년대의 미스코리아 드레스의 네크라인은 V 또는 일부 오프숄더와 로우 네크라인으로 연출하여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거나 가슴을 노출시키는 네크라인이 많이 연출되었는데 이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드레스 패션에 연출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1980년대는 드레스 실루엣과 더불어 화려하고 섹시한 이미지의 연출로 오프숄더 네크라인이 많이 연출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는 오프숄더 네크라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미스코리아들은 패션 경향에 충실하면서도 개성 표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스코리아 드레스에서 전체적으로 오프숄더 네크라인이 많았던 이유는 목선이 길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웨이스트라인

1970년대 미스코리아의 웨이스트라인은 서구적 미인의 조건인 큰 키에 대한 선호로 하이 웨이스트라인의 드레스가 많이 연출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1980년대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네츄럴 웨이스트라인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가는 허리를 강조하여 여성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 봉제과정의 디테일

1970년대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스타일에 많이 연출된 개더는 허리선을 강조하며, 여성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1980년대에 많이 연출된 리플은 여성스러움과 중후반 이후의 섹시미를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990년대는 개더의 효과로 여성스러움과 세련된 기본에 충실한 네츄럴한 미를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되며, 200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디테일을 사용함으로써 고정적이지 않는 다양한 개성 강조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전체적으로 개더와 리플을 이용한 연출은 드레스 실루엣을 풍성하게 하며 가는 허리를 강조하여 여성적 우아함을 부각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

2.3 트리밍

1970년대의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 스타일에 많이 연출된 트리밍은 꽃으로 로맨틱한 여성성을 표현하였고, 1980년대 이후로는 비즈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고급스러운 아름다운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

2.4 색채

1970년대는 판독이 어려운 사진들이 많았지만 판독 가능한 사진의 드레스가 모두 흰색을 연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드레스가 흰색으로 연출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보수적 사회분위기 및 전통적인 드레스에 대한 고정관념과 컬러의 확실성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흰색드레스가 많이 연출되었는데 1970년대와는 달리 단일색이 아닌 1980년대는 대표 색채외에 유채색과 글리터 색채로 섹시미와 개성을 강조하였고, 1990년대는 비교적 유채색의 비중이 많아졌다. 이는 80년대부터 컬러 TV가 대중화 되면서 드레스 패션스타일에서도 유채색이 많이 연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에 이어 2000년대 이후에도 유채색을 많이 연출하여 고정적이고 관념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개개인이 가장 어울리는 개성적인 스타일을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

2.5 장신구

미스코리아의 장신구의 착용은 1970년대부터 2000년 이후까지 전 년대를 걸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귀걸이는 대부분 장식이 크고 중간 길이 이상을 착용 하였으며, 목걸이는 일부 내지는 거의 착용을 하지 않았다. 이는 귀걸이 착용 시 목이 길어 보이는 효과와 좀 더 얼굴에 주목을 끌어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자 강조한 것으로 보이며, 목걸이는 목이 짧아 보일 수 있어 많이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3. 시대별 유행경향과의 관계 분석

3.1 1970년대

1970년대의 웨딩드레스는 실용적 모드의 H, A-실루엣이 유행했던 시기로 미스코리아 45.0%가 H-실루엣을, 35%가 X-실루엣으로 연출하여 잘록한 허리선을 강조 하려던 시대의 유행경향을 반영하면서도 A라인을 강조 했던 웨딩드레스의 유행경향보다 X-실루엣의 드레스를 연출했던 미스코리아들은 좀 더 풍성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선보이고자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거나 가슴을 노출시키는 네크라인의 유행은 그대로 미스코리아 드레스 네크라인에 V, 스퀘어, 로우, 캐미솔, 오프숄더의 디자인으로 연출되어 당대의 유행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웨딩드레스에서 나타난 반팔과 넓은 소매 형태, 그리고 어깨를 강조한 하이 네크라인은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 스타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재는 다양해 졌지만 색채는 고전적인 하얀 웨딩드레스에 대한 고정된 생각과 이브닝 드레스 문화가 보편화 되지 않았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미스코리아의 드레스도 대부분 흰색으로 연출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70년대의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 스타일에서는 웨딩드레스와는 달리 베일과 트레인이 생략되어 이브닝드레스의 특징을 살린 것으로 분석된다.

3.2 1980년대

1980년대는 패션스타일이 가장 화려했던 시대로 X-실루엣의 서림이 많은 플레어형태의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많이 선보였듯이 84%의 미스코리아가 X-실루엣의 드레스를 입고 개더, 러플, 플리츠, 바인딩, 드레이프, 랩어라운드, 티어, 페플러, 레이스, 스팅글, 비즈, 자수, 벨트, 꽃, 리본 등의 화려한 디테일과 트리밍으로 드레스 패션스타일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는 컬러TV의 등장으로 대중들의 컬러와 디테일에 대한 관심이 드레스 패션의 영역을 확장시킨 것으로 시대적 경향이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드레스의 색채도 기존의 흰색을 선호하던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유채색이 등장하였는데 이 또한 시대적 유행경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1987년의 인어스타일의 유행은 그대로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스타일에 영향을 미쳐 미스코리아의 38.0%가 X-피트엔 플레어 실루엣으로 드레스 패션스타일을 연출하였으며 중후반에 특히 미스코리아 진(眞)에게서 머메이드 실루엣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1988년의 복잡한 디테일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크게 강조했던 웨딩드레스의 유행은 미스코리아 진(眞)에게서 나타난 아우어 클래스 실루엣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후반에 크게 유행한 공주풍의 드레스도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스타일에 영향을 미쳐 많은 미스코리아들이 X-실루엣으로 연출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다이애나 비의 웨딩드레스에 나타난 어깨가 부풀어오른 퍼프소매의 드레스는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스타일에 80년대의 중 후반에 집중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1989년의 아이보리색상을 선호했던 유행 경향은 미스코리아 드레스 색상에서는 연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시기는 가장 화려하고 과장되며 섹시한 여성성을 강조하고자 한 시기로 분석된다.

3.3 1990년대

1990년대 초반은 자기 체형에 맞는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었던 시기로 미스코리아들도 다양한 형태의 드레스를 선택하여 개성을 표현하였으며, 네크라인의 과감한 노출의 유행경향은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스타일에 오프숄더 및 스윗하트 네크라인으로 연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반까지 이어온 공주풍의 드레스는 미스코리아 패션에 피트엔 플레어로 지속적인 인기를 누렸고, 90년대 후반에 유행한 장식을 절제한 슬림 앤드 롱 스타일은 쉬스 스타일로서 역시 디테일과 트리밍이 절제된 형태로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스타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시기에 웨딩드레스는 특징적으로 트레인이 80년대보다 더욱 장식적이고 부피가 커져서 강조되었는데 미스코리아 드레스에서는 80년대의 트레인은 드레스 밑 부분에 화려하게 연출된 반면 90년대에는 허리선이나 어깨선부터 늘어지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80년대보다 더 많이 연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미스코리아 드레스에서의 트레인의 연출은 웨딩드레스의 유행경향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개성을

위해 연출한 것으로 사료된다.

3.4 2000년 이후

2000년대 초반은 1990년대 후반을 이어서 A, H-실루엣의 슬림하고 단순하지만 자수, 비즈, 실크, 인조 보석등으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멋을 연출하였던 시기로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스타일도 고급스러운 소재를 통해 심플한 멋을 내는 쉬스 실루엣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은 H와 X실루엣이 공존하였고 점점 후기로 갈수록 X-실루엣의 비중이 많아졌으나 다양한 실루엣이 등장하였던 것으로 보아 시대적 유행경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트리밍은 자수와 비즈로 엘레강스한 멋을 연출하였고 특히 장식보다는 고급스러운 소재의 사용으로 엘레강스한 멋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까지 이어오면서 점점 단순하지만 고급스러운 취향으로 개성을 돋보이고자 했던 시대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2006년의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스타일은 색채, 소재, 트리밍등이 굉장히 화려하며 실루엣 또한 아우어클래스 스타일로 풍성하고 우아한 멋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적 유행경향과의 차이점으로 분석된다.

IV. 결론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 스타일의 구성요소에서 실루엣은 H-쉬스 실루엣과 X-피트엔플레이어 실루엣이 많이 연출되었는데 쉬스 실루엣은 미스코리아의 단아하고 색시한 여성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며, 피트 엔 플레이어 실루엣은 화려하고 로맨틱한 여성미를 강조한 것으로 사료되며, 드레스 패션스타일에서 오프숄더 네크라인이 많이 연출되었던 것은 목선이 길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1970년대 초반 하이 웨이스트라인은 서구적 미인의 조건인 큰 키에 대한 선호로 많이 연출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대체로 네츄럴 웨이스트라인이 많았던 것은 가는 허리를 강조하여 여성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피트엔플레이어 실루엣에 개더와 러플의

연출이 많았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1980년대 이후부터 많이 사용된 비즈는 미스코리아 드레스에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으며 드레스에 사용된 색채는 1990년대까지 흰색으로 많이 연출되었다가 1980년대에는 포인트 및 glitter 색채를 매치시켰고, 1990년대부터는 유채색이 등장하고 2000년 이후부터는 유채색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더욱 다채로운 드레스 색채로 개성을 연출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미스코리아들이 연출했던 장신구는 대부분 귀걸이를 많이 착용하였으며 이는 목이 길어 보이고 시선을 얼굴에 집중시켜 아름다운 매력을 더욱 돋보이고자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미스코리아의 드레스패션스타일과 웨딩드레스의 시대별 유행경향과의 관계분석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의 드레스는 실용적이며 전통적인 드레스가 공존했던 시기로 이는 미스코리아의 H, X-실루엣에 반영되었으며 가슴을 노출시키는 네크라인의 유행 또한 미스코리아 드레스 패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드레스의 색채는 고정적인 웨딩드레스의 색채인 하얀색이 미스코리아 드레스에도 반영되어 대부분 흰색으로 연출되어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1980년대는 X-실루엣의 공주풍 드레스와 1987년대의 머메이드 실루엣, 1988년의 아우어클래스 실루엣과 공주풍의 실루엣은 시대적 유행경향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반면 1989년의 아이보리 색상의 유행은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스타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컬러 TV가 대중화되면서 흰색의 드레스뿐만이 아닌 유채색과 glitter 색채의 드레스가 연출되었다.

1990년대는 초반의 체형에 맞는 디자인과 네크라인의 노출, 중반까지의 공주풍 드레스의 유행, 후반의 슬림 앤드 롱 스타일의 유행은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스타일에 영향을 미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미스코리아의 드레스 패션스타일 또한 H-실루엣의 슬림하고 고급스러운 소재와 비즈장식등으로 엘레강스한 멋을 연출하였는데 이 또한 시대적 유행경향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귀걸이의 연출은 시대경향과는 무관하게 길고

장식이 큰 디자인으로 미스코리아 대부분이 착용을 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 고 문 헌

[1] 라사라교육개발원, 服飾大事典, 1995.
 [2] 박숙현, 패션 디자인론, 예학사, 2007.
 [3] 이인자, 현대 사회와 패션,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9.
 [4] 이호정, 패션디자인, 교학연구사, 2005.
 [5]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교문사, 2003.
 [6] 장은숙, 토털 패션, 뷰티 코디네이션, 경춘사, 2008.
 [7] 김정연, 현대패션에 나타난 하이웨이스트 드레스에 관한 연구 - 2005~2007년 오프 꾸뛰르 컬렉션을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대학원 의상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8] 문윤경, 우리나라 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9] 박정은, 현대 웨딩드레스의 유행 변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10] 서희영, 우리나라 현대 여성 복식의 변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8, 1990.
 [11] 이은정, 웨딩드레스 디자인 분석과 감성이미지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12] 전원희, 2000년대 웨딩드레스 스타일에 나타난 패션이미지 표현특성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상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13] 정진숙, 여성복을 중심으로 본 한국 현대 패션의 흐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지 제9권, 제2호, pp.17-24, 2011.
 [14] 오재희, op, cit, p.36
 [15] <http://www.hmisskorea.hankooki.com>
 [16] planningcouture.co.kr
 [17] www.ifp.co.kr, 05,06 S/S 트렌드

저 자 소 개

이 복 희(Bok-Hee Lee)

정희원



- 2008년 2월 : 서경대학교 미용 예술대학원 헤어디자인 전공 (미용예술학석사)
- 2011년 2월 : 서경대학교 문화 예술학과(박사수료)
- 2007년 9월 ~ 현재 : 삼육보건 대학 피부미용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패션, 미용예술